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obo.or.kr>



〈우리 모두의 기도〉 박춘화(보나, 성당성당)
2013년 1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사진설명 6면 참조)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루카 9,28ㄴ-3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드님의 영광이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법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까?

제1독서 창세 15,5-12,17-18 **제2독서** 필리 3,17-4,1 **복음** 루카 9,28ㄴ-36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최의정 바오로 신부 | 군위본당 주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히 변모하심을 전하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 이 나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고자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나비가 번데기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을 때 비로소 찬란히 날아올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잘 준비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일 터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교우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제이고 싶다는 원의로 웰 다잉(well-dying)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이 하나 같이, 결국 잘 죽기 위해서는, 즉 훌륭한 죽음(good death)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 훌륭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아야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간과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죽음이란 먼 날의 일,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내 삶의 첫 날,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양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현자들이 권고하듯이, 매일을 잘 살아야 할 텐데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로, 높은 지위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행히도 더 고

귀한 지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겠다고 우리는 세례 때 몇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사순시기가 오면 조금 더 깊게 우리 삶을 성찰하고 이 서약을 기억해 봅니다. 세례 때 했던 서약을 일상으로 실천하고자 한 번 더 노력해 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칠죄종도 한 번 더 챙겨 봅니다. 칠죄종(七罪宗) -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질투, 분노, 나태 - 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로, 6세기 말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께서 교리화하셨지요. 또 지난 2008년 교황청은 ‘세계화 시대의 신(新) 칠죄종’으로 환경파괴,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학실험, DNA 조작과 배아 줄기 세포 연구, 마약 거래, 소수의 과도한 축재(蓄財), 낙태, 소아성애 등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살겠다고 이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께 잘 살겠다고 서약했고, 매년 오는 이 사순 시기는 그러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본연의 삶을 더 잘 살아가며 실천하겠다고 애쓰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나비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번데기로서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변모를 우리 꿈이요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터입니다. 교회 전통의 지표들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매일을 깨어서 사는 이가 됩시다. 그리하여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가 되어 웰다잉을 넘어 궁극에 거룩한 변모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복의 사람이 됩시다. **최의정**



교구 사제 인사 발령

* 부임일 : 2013. 2. 22.(금)

No.	성 명 (세례명)	임	면	비고
1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휴양	금호본당 주임	
2	여창환(라우렌시오) 신부	매일신문사장	안식년	2013. 2.18.부
3	최창호(야고보) 신부	겸) 경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장		황성본당 주임
4	송재준(마르코) 신부		겸) 김천부곡 사회복지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5	이성구(요한) 신부	겸) 김천부곡 사회복지관장		평화본당 주임
6	이창영(바오로) 신부	안식년	매일신문사장	2013. 2.18.부
7	이태우(프란치스코) 신부	겸) 대구대교구 CPE센터장		병원사목부장
8	정래곤(안드레아) 신부	금호본당 주임	지례본당 주임	
9	박상일(이나시오) 신부	지례본당 주임	3대리구 가정담당	
10	권병일(요한) 신부	교포사목 (독일 뮌헨)	유학(독일)	2013. 2. 1.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 사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2월 11일 추기경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고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영육간의 기력이 쇠진하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히셨다. 성하께서는 올해 85세로 지난 2005년 4월 교황에 선출되어 재임 7년째이다. 성하께서는 그리니치 표준시간으로 오는 28일 오후 7시에 교황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시각 이후 사도좌는 공석이 되며, 콘클라베(교황을 뽑기 위한 추기경단의 비밀선거)가 소집될 예정이다.



생존해 있는 교황의 사임은 1045년 베네딕토 9세, 1046년 그레고리오 6세, 1294년 첼레스티노 5세 등의 예가 있으며, 가장 최근의 예는 1415년 그레고리오 12세 교황의 사임이다. 이번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사임은 근세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598년 만의 일이 된다.



레지오 마리아

교구 문화홍보실

현재 대구대교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신심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레지오 마리아(Legio Mariae)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줄여서 보통 레지오라고 부르는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인데,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기도와 선행, 봉사와 전교를 통해 영적인 군대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는 옛 로마의 군대 조직을 본떠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맞비기자면 가장 기초가 되는 ‘쁘레시디움’은 소대, 그 위의 조직인 ‘꾸리아’는 중대, 그 상위의 ‘꼬미시움’은 대대, 이런 식입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최고 기관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아’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1921년 아일랜드에서 프랭크 더프(1889~1980)라는 열심한 평신도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 것은 1953년 5월 31일에 목포에 세 개의 뿌레시디움이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1957년 왜관본당에 ‘종도의 모후’ 뿌레시디움이 설립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해에 계산주교좌성당의 ‘다윗의 적루(다윗의 탑)’와 ‘샛별’을 비롯하여 15개의 뿌레시디움이 줄줄이 설립되었고 이듬해에는 ‘의덕의 거울’ 꾸리아가 결성되었습니다.

창립 60년을 맞이한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는 현재 국가 단위의 기관인 세나투스를 서울, 대구, 광주에 하나씩 3개나 가지고 있으며 단원 수가 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놀라움과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에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아일랜드에서 찾아온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임원들이 한국의 세나투스 간부 한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성모님 존칭을 더 많이 지어 달라. 한 본당에 황금궁전이 3개나 된다.”고 해서 서양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레지오 마리아는 전형적인 성모님 신심이지만, 또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장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립자 프랭크 더프는 1965년 교황님의 부름을 받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출석하였으며

교황님으로부터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열정을 크게 불러일으킨 데 대해 치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는 교우들에게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일깨운 공로와 사목 일선에서 전교하고 권면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뻗세라의 표지』 성모님의 우측에 있는 것이 레지오의 군기(軍旗)인 백실룩이다. 로마 군기를 본떠 만들었지만 독수리 대신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를 상단에 배치하였다. 신입 단원은 이 백실룩을 잡고 성령께 드리는 선서를 한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이 잘못 기른 탓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에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마치 인생 막장에 이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나랏돈으로 연구를 하고 청소년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술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비행을 일삼는다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마 환경 탓이겠구나.’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원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흔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예요!”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청소년 폭력 문제를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뮤리엘 가디너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폭력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모험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의 청소년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사회의 청소년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성적 외에는 자신의 가치나 힘을 스스로 발견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험은 모조리 TV나 인터넷을 통한 ‘대리 모험’인데, 이런 대리 모험은 입맛만 더 다지게 만들지 결코 성취감이나 자존감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어보지 못한 쓸모 있고 실제적인 모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와 희생입니다.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고통과 불편을 참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듯합니다. 스펙 쌓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살과 폭력의 무서운 고리를 더 늦기 전에 끊기 위해서. **필문**

금주의 성인



성 네스토르(2월 26일)

251년에 순교하신 네스토르 성인께서는 마지두스(현재의 터키 지역)의 주교로 계셨는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때 체포되었다. 성인께 총독이 묻기를, “그대는 황제의 명을 모르는가?”하자 성인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분의 명을 알고 있소.”하셨다.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매 뿐이요.”하고 대답하셨다. 성인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하고 권고하자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총독이 깜짝 놀랐다고 전한다.

■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전대사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전대사 미사를 2월 11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봉헌하셨다. 미사강론에서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특별히 올 한 해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자”고 당부하셨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대구주보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2013년 1월 당선작 선정

- 최우수상 : 〈우리 모두의 기도〉 박춘화(보나, 성당성당)
- 우수상 : 〈아버지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김호헌(베드로, 옥수성당)
- 장려상 : 〈어머니의 기도〉 이문준(빈첸시오, 사동성당)

매월 선정되는 당선작은 연말결선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앙의 해 폐막미사에 즈음하여 전시하고 화보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출품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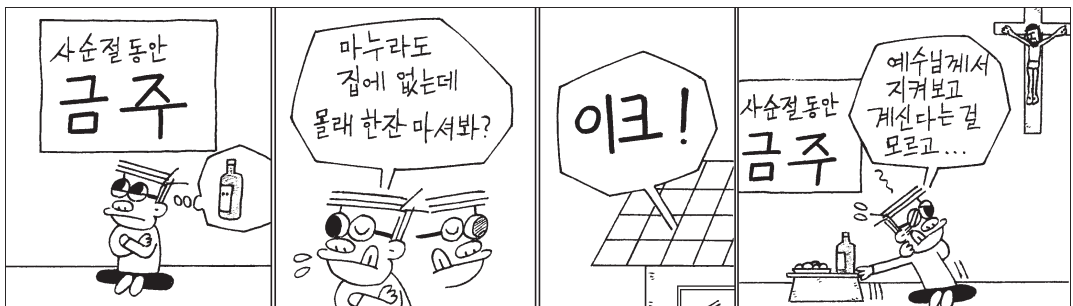
2013년 1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상’ 〈우리 모두의 기도〉, 박춘화(보나, 성당성당)

“늘 성모당에는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그날에도 우산을 바쳐 들고 모두들 성모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기도의 지향은 다르겠지만 성모님을 통하여 그분께 다다를 수 있기를 청하는 간절한 마음들은 같을 것입니다.”

(눈 오는 성모당에서)

CCTV가 아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2월 25일(월) 오전 11시 구미도량성당
-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2월 25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 오순절평화마을 후원회 미사 2월 25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 바느지도회 월례미사 2월 25일(월) 오후 1시 삼덕성당
-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3월 2일(토) 오전 10시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3월 2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함
문의: 622-4408

carmeldg@hanmail.net

매월 첫 토요일 저녁기도에 초대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1:00
장소: 서울 성북동 본부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4:00, 과천 본원
문의: 라우렌시아수녀 (010)5449-3166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3.9(토) 10:00, 다사성당
주제: 마리아와 요셉께 배우는 부부일치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MR피정 (성경묵상프로그램)

12차: 3.23(토)~24(일), 한티

대상: ME주말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대구ME 983-0521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무료숙식)

기간: 3.1(금) 18:00~3(일) 15:00
장소: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피정

과정: 10주간(매주 목) 10:00~12:00
첫모임: 3.7(목) 10:0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바틀로 교육센터
문의: (010)2505-9545

교육 | 모집

살레시오 여름 신앙 학교(중·고생)

기간: 7.19(금)~8.15(목), 8만 5천 원
장소: 충남 태안군 살레시오피정의집
주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접수: 3.14(목) 9:30부터 선착순
문의: (042)584-0654 / (042)585-065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사순시기 이태리성물 은제품 특가판매

기간: 2.13(수)~3.31(일)
주관: 성바오로서원(남산동)
문의: 256-4592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3.9(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카눔
문의: 632-9800 / (010)3440-0304

가톨릭상지대학 원격평생교육원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 온라인 과정
개강: 3.7(목),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www.cec.or.kr

안동 농은수련원 여름 환경캠프

1차: 중·고등부 7.23(화)~24(수)
2~5차: 초등부 7.25(목)~8.6(화)
회비: 중·고등 7만 5천 원, 초등 7만 2천 원
문의: (054)652-0592 www.nongeon.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재실리아), 강윤정(아네스)

강남 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일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테파노 (교유문 우대)

하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유방 감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內
복합점: 복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內
(주)한국금은거래소 ☎ 763-8838

의사가 보약 따오러 오는 한의원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환(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길안건축설비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지붕계랑
판넬, 창호, 단열시공
☎ 053)556-6257 김기 석
010-6608-6257 (다니엘)

3월 첫째주 가나강좌

일시: 3.3(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외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로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교육 | 모집

가톨릭음악인협회 주최

제1대리구 성가대페스티벌 초대

일시: 4.15(월) 19:30, 삼덕성당
연주곡: 5~7분 자유곡
신청마감: 2.28(목)
문의: (011)514-0001 / (010)8565-6940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공문 '천대교 2012-0125' 참고)
대상: 본당 단체(자모회 등),
유치원(학부모 대상)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틴스타 교육생 모집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청소년 성교육
기간: 3.16(토)부터 12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대상: 중2·3학년, 고1·2학년
문의: 한국틴스타대구지부 250-3037

관덕정 3월 사순영성특강

일시: 3.2(토) 16:00
강사: 권순기(사도요한)
문의: 관덕정 254-0151

2013년도 1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영성신학, 윤리신학2, 교회법, 교회론
계시현장, 교회현장, 전례봉사자교육,
생태영성, 신약구약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가톨릭근로사회관 화, 목 저녁반

3월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3.5(화) 19:00~20:30 월 3만 원
과정: 창세기, 탈출기, 4복음(총1년)
기타: 관덕정 낮반은 시편 강의 중
문의: 253-1313 / (010)2578-553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창작사진: 3.4(월) 10:00
오카리나성가: 3.4(월) 12:30
하모니카성가: 3.6(수) 13:00
사범-제대꽃꽃이: 3.8(금) 11:00
문의 및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대가대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 2.18(월), 개강: 3.4(월)
과정: 학점은행(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취미자격과정, 음악1:1레슨,
성가교실, 장수건강대학, 노래교실 등
문의: 660-5554~77

제48기 신앙의 해 선교대학

일시: 3.16(토) 10:30~16:00
지도: 이판석 신부, 장소: 계산문화관
주제: 선교하며 신명나게 살아야
신청: 선착순 50명(신청비 무료)
주관: 가두선교단 781-6100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9~6.11(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 www.holyfcac.or.kr

채용 | 안내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모집

마감: 3.7(목)
문의: 총무과 630-3001

상지유치원 조리사 채용

서류: 이력서, 마감: 2.25(월)
자격: 조리사자격증 소지자(40~50대)
문의: 558-4422 / (010)8802-6839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2.27(수),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외·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이강진원**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SM **수맥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상위 1%의 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동기, 공부방법, 노트필기, 교과서적용, 학습플래너)
학습코칭반 / 글분석반 / 다중지능검사
☎ 752-0966 (윤종선 가필로)
수성구청역 2번 출구 KBS 앞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천립심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스피치! 모든 사람 개성마다
Speech.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담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바나)**

척추 · 관절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 · 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 | 도 | 석 | 유
전화 한통화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